

# 신발 잃어버린 날

작성자 : 김희웅

## 로그라인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시골 소녀 정아는 시간이 남아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신발을 잃어버린다.

## 주제

신발은 때로 존재를 나타내는 의(衣)가 된다. 구두는 깔끔하고 멋있는 사람으로서의 인상을 어필하기 위해 신는다. 하지만 옷과 구두는 자신을 나타내는 일종의 수단일 뿐, 진정 중요한 것은 '나' 라는 자신 그 자체이다.

## 캐릭터

정아 : 지방에 살며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인물. 매번 낙방하는 취업 준비에도 밝은모습을 잃지 않으려 한다.

정아의 부(父)

식당 아주머니

## 시나리오

S#1 버스터미널, 버스 안

검은색 정장, 흰 셔츠, 깨끗하게 닦은 구두, 한껏 깔끔하게 입은 채로 배낭을 멘 정아. 버스에 올라탄다.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긴장과 설렘이 있는 표정으로 밖을 바라본다. 캘린더를 열어 면접 시간, 면접 준비물 등을 재차 확인한다.

S#2 정아의 집

현관에 앉아 물티슈로 구두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는 정아. 흰 티에 편한 차림의 아빠가 옆에 다가와 앉는다. 현관 옆에 있는 서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찾는다. 구두약을 꺼내어 현란한 솜씨로 구두를 닦는다. 불을 붙여 닦기도 하고 침을 뱉으며 닦기도 한다.

아빠 : 쥐 봐. 아빠가 기가 맥히게 닦아줄게.

현란한 솜씨로 구두를 닦는다. 침을 뱉으며 물광을 낸다.

정아 : 아이 참. 아빠! 뭐하는 거야. 내가 한다니까.

아빠 : 기다려봐.

뺨으려는 정아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빠.

(위의 대사는 정아의 Nar과 오버랩 된다.)

정아(N) : 올 해로 세 번째 가는 서울이다. 드라이크리닝을 세 번 맡겼고, 구두는 집에서 세번이나 광을 냈다. 구두를 닦을 때면 아빠는 군대 얘기를 꺼내며 불광이며 물광 내는 법들을 알려줬다. 광은 자존심이라나 뭐라나. 매번 똑같이 듣는 얘기들이 질리긴 해도 전문가는 전문가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으니 음.. 자존심이 사는 것 같달까.

S#3 서울의 어느 거리

아침 일찍부터 나와 집에서 한 끼도 못먹은 정아의 뺨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린다.

서울에 도착하고 시계를 보니 11시이다. 시간이 남아 한 식당에 들어간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 어지럽게 놓인 신발들 사이로 정아는 구두를 벗어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놓는다.

[타이틀이 나온다.]

## 신발 잃어버린 날

S#4 식당

식당의 신발장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쪼그려 앉은 정아. 정아가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에는 웬 낡은 성인 남자 운동화가 놓여있다. 시선을 돌려 벽면을 바라본다. 벽면에는 문구가 써있다.

[주의!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음]

정아 : (울먹이는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내 구두..

한숨을 쉬며 다시 고개를 박는다. 식당 주인도 그녀의 모습이 썩 안쓰러워 보였는지 슬리퍼나 주방화라도 빌려줄지 물어본다.

식당주인 : 아가씨, 우리가 쓰는 슬리퍼나 주방화라도 좋을까?

괜찮다며 고개를 젓는 정아.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본다. 시간을 보니 면접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한 켄레 남은 운동화라도 신고 갈까 하여 그것을 들어본다. 코앞으로 갖다 대니 냄새가 고약하여 구역질을 한다. 울상을 짓는다. 뒷 공간이 한참이나 남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식당 밖을 나선다.

정아 : 안녕히계세요..

#### S#5 회사 복도

면접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정아. 정아의 이름이 불린다. 화면에서는 문을 열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는 정아의 발을 비춘다. 문이 닫힌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당차게 자기소개를 하는 정아의 목소리가 문 밖으로 들린다.(F.O)

정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서 올라온 김정아라고 합니다!

#### S#6 서울의 어느 거리

(F.I)홀링이는 신발을 신고 터벅터벅 걷는 정아. 아무 표정 없이 걷다가 멈춰서서 자신의 발을 바라본다. 디자인으로나 사이즈로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운동화가 원망스럽다. 신발을 벗어 던지며 분풀이를 해보지만 맨 발로는 다닐 수 없어 신발을 다시 주워 신는다.

정아(N) : 문을 열고 처음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일제히 내 발을 쳐다봤다. 다행인건지 이 언밸런스한 복장에 대해 누구도 물어보진 않았다.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하지만.. 아..

(육성으로) 망했어.. 완전.

문자 알람이 울린다. 핸드폰을 꺼내어 확인하려던 찰나 바로 앞에서 한 남자가 넘어진다. 남자의 발 밑으로 끊어진 슬리퍼가 보인다. 정아는 남자에게 괜찮느냐 묻고 남자는 일어선다. 끊어진 한 쪽 슬리퍼를 손에 들고, 한쪽은 맨 발인데 다시 걸어가는 남자.

정아 : 괜찮으세요?

남자 : 아.. 예..(혼잣말로)아 쪽팔려.

뒤늦게 문자 알람을 확인한다. 몇 시간 전 보았던 면접의 최종 합격 문자다. 정아는 숨 막힐 듯한 기쁨에 사로잡힌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남자에게로 뛰어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준다.

정아 : 이거 신으세요!

남자 : 예?

정아 : 전 괜찮아요!

그리고선 맨발로 날아갈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발박수도 치며 달려간다. 노을이 예쁘게 저물고 영화는 끝이 난다.

Epilogue

신발을 건네받은 남자의 모습. 양 손에 정아가 건넨 신발을 들고 있다. 코 앞으로 갖다 대자 구역질을 한다. 남은 한쪽 슬리퍼를 마저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는다.

끝.